

나주, 초강력레이저센터 구축 청신호

과기부 타당성 용역 예산 반영...1조대 국가시설

50만㎥ 규모...국가첨단과학기술 허브 역할 기대

국가대형연구시설로 주목받는 ‘초강력 레이저센터’ 나주시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나주시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강력 레이저센터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5억원이 최종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

전남도와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은 지난 해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 실패 이후 새로운 대안으로

초강력레이저센터를 에너지공대 설립기 본계획에 포함된 국가대형연구시설로 짚었다.

초강력 레이저센터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9,000억원을 투입,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인근 50만㎥ 규모로 건립하는 것이 목표다.

‘200PW 초고출력’, ‘40kJ 고에너지’ 기반 레이저시설을 결합한 다목적·집약형 복합연구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지난 2월 전남도, 나주시, 한전이 공동

출연한 ‘초강력 레이저센터 구축 타당성 분석 용역’이 8월 완료되면서 전남도와 나주시는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초강력 레이저센터는 물리·화학·바이오 등 기초과학연구에서부터 응용분야 활용, 안보기술 개발 등 다방면에서 활용성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정점이 된 반도체, 첨단 신소재 기술 국산화와 고부가가치 의료장비 육성, 재료가공 등 국가첨단과학기술 역량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형연구시설 불모지인 호남권 연구 인프라 개선은 물론 내년 개교를

앞둔 한국에너지공대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전 등 대학, 국책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레이저를 이용한 차세대 에너지 연구 기능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방, 경제, 의료 등 활용성이 무궁무진한 레이저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 독일, 중국 등 선진국의 투자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한국에너지공대와 함께 에너지수도 나주의 비전 실현을 앞당길 랜드마크인 초강력레이저센터가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국가정책으로 최종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 한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나주시가 최근 ㈜삼영이엔지, 미국 락빗사와 함께 인공태양광 LED조명인 ‘제노션’ 미국 시장 판매·홍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 제공

인공태양광 특허 조명 수출 지원

나주시-㈜삼영이엔지-LOCBIT 협약

나주시가 항바이러스·살균 기능을 갖춘 인공태양광 발광다이오드 특허업체, 에너지플랫폼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국 수출시장 진출에 나선다.

나주시는 최근 ㈜삼영이엔지(대표 김중욱), 미국 락빗(LOCBIT)사와 함께 인공태양광 LED조명인 ‘제노션’ 미국 시장 판매·홍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나주시 청사 이화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찬균 나주시장, 김중욱 대표, 박호찬 LOCBIT아시아대표, 김학재 한국전력공사 에너지밸리추진실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나주시에 본사를 둔 ㈜삼영이엔지는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항바이러스·살균효과, 광생물학적 안전성을 검증받은 LED 제품인 ‘제노션 라이트’ 특허·조달 등록 업체다.

제노션 라이트 조명은 인공 태양광과 가장 흡사한 점대 조명으로 눈의 피로도 가중치가 비교적 낮다. 인체에 무해한 빛

의 파장을 통해 99.9% 살균작용을 하는 것이 장점이다.

앞서 ㈜삼영이엔지는 지난 5월부터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도청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업체에 제품을 설치했다.

LOCBIT은 빅데이터·인공지능 분석 기반의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월마트를 비롯한 미국 중·대형 기업에 전기에너지 저감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양 업체는 성공적인 사업 운영과 판매·홍보를 위한 판매처 정보, 제품개발 정보를 교류하고 나주시는 원활한 수출 판로 확보 등 행정적 지원에 힘써하기로 했다.

정찬균 부시장은 “제노션 라이트는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및 세균에 취약한 환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수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업체인 ㈜삼영이엔지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유망 중소기업에서 세계적인 LED조명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이상익 함평군수가 마스크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 KF94 보건용 마스크 생산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서 제작

함평군이 100% 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KF94 보건용 마스크 제조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평군은 1일 “지역 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 무지개근로사업장에서 ‘무지개 황사방역 KF94 보건용 마스크’ 4종을 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난달 31일 학교면에 있는 마스크 생산현장인 무지개근로사업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곳에서 생산하는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KF94 보건용 마스크로 ▲성인용 대형 ▲유아 및 어린

이용 소형 ▲비말차단 KF-AD ▲수술용 덴탈 마스크로 총 4종이다.

특히 무지개 마스크는 4종 구조의 고밀도 필터가 장착 돼 있어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고, 새부리형 입체구조로 설계 돼 있어 호흡이 편한 것이 특징이다.

마스크는 무지개근로사업장 현장에서 직접 구매도 가능하다.

이상익 군수는 “100% 국산 원자재를 사용한 식약처 허가 제품으로 누구나 믿고 구매해도 된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최고의 방역인 마스크 착용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준 기자

“청년·전입 인구 안정적 정착 지원”

장성, 희망디딤돌·보금자리 사업 추진

장성군이 청년 인구 유입과 전입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1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과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도내 저소득 근로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장성군에서 동일 금액을 지원한다. 만기 시 최대 720만원의 예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8월까지로, 사업 대상은 총 25명이다.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또는 사업자로 ▲최근 6

개월간 3개월 이상 노동 또는 사업체 경역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자 가운데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 인정액 비율이 낮은 청년부터 우선 선정된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월 최대 15만원 이내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 30일 사이에 장성 지역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이 대상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성군에 주소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총 8명을 선정하며, 오는 10월 5일까지 모집한다. /장성=전일용 기자

빛가람동 아파트 선제 전수검사 마무리

나주시는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2주 간 실시한 빛가람동 아파트 단지별 선제 전수검사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빛가람동 19개 아파트, 총 1만5,634세대를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 2개 단지로 나눠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했다.

나주시 방역당국은 검사 이전보다 실시 이후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수가 크게 감소한데다 자발적 검사 참여 분위

를 조성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지난달 1일부터 전수검사 직전날인 16일까지 총 2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수검사가 시작된 17일부터 종료시점인 30일까지 확진자 수는 이전 대비 약 65%감소한 8명으로 집계됐다.

검사자 수는 지난 7월 1만3,179명에서 8월 2만8,57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나주=조충권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나주 금암마을 벽화 그리기

나주시 노안면은 최근 금암마을에 벽화그리기 등 환경정비를 통해 산뜻한 마을분위기를 조성했다고 1일 밝혔다

벽화그리기는 마을 주민 간 소통과 협력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범도민 운동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중심가 도로변 500m 구간에 주민 20명이 참여해 페인트칠과 재미있

는 벽화를 그려 넣었다.

또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으로 농촌미관을 저해했던 파출소 앞 빈 빈터에는 화양목을 비롯해, 메리골드, 베고니아 등 다양한 꽃 1,000여본을 심어 아름다운 소공원을 조성, 관리해 오고 있다.

한편, 추진협의회는 노후간판 정비와 불량적치물 처리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나주=조충권 기자



장흥 마파람수산물(주), 감성돔 종자 무상 기탁

장흥군 관산읍에 소재한 마파람수산물(주)이 최근 득량만의 생태환경 복원 및 국내 최대 갈피발의 어류 서식지 조성을 위해 감성돔 17만마리를 장흥군에 기탁해 삭금항과 장항항 일원에서 무상 방류를 실시했다.

김형순 대표는 현재 부경대 수산생명 의학과 재학 중으로 지난 2020년 12월 마파람 수산을 창업해 수산종묘생산업

을 이끌고 있다.

김 대표는 “어린 시절부터 바다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며 성장했다”며 “기후 변화로 인한 어족 자원 감소 등으로 황폐해져 가는 득량만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서식지 조성과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에 동참하기 위해 건강한 우량 종묘를 무상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흥=이옥현 기자



장흥 부산면, 면민에 마스크 지원

장흥군 부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 모든 세대에 마스크 2만개를 지원했다.

9월중으로 예정돼 있던 면민의 날 행사를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취소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의 댐 주변 지원사업비로 지원된 행사비 800만 원으로 변형회에서 마스크를 구

입해 지원했다.

마스크는 부산면 17개 마을 855세대에 배부됐다.

김소향 부산면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마스크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